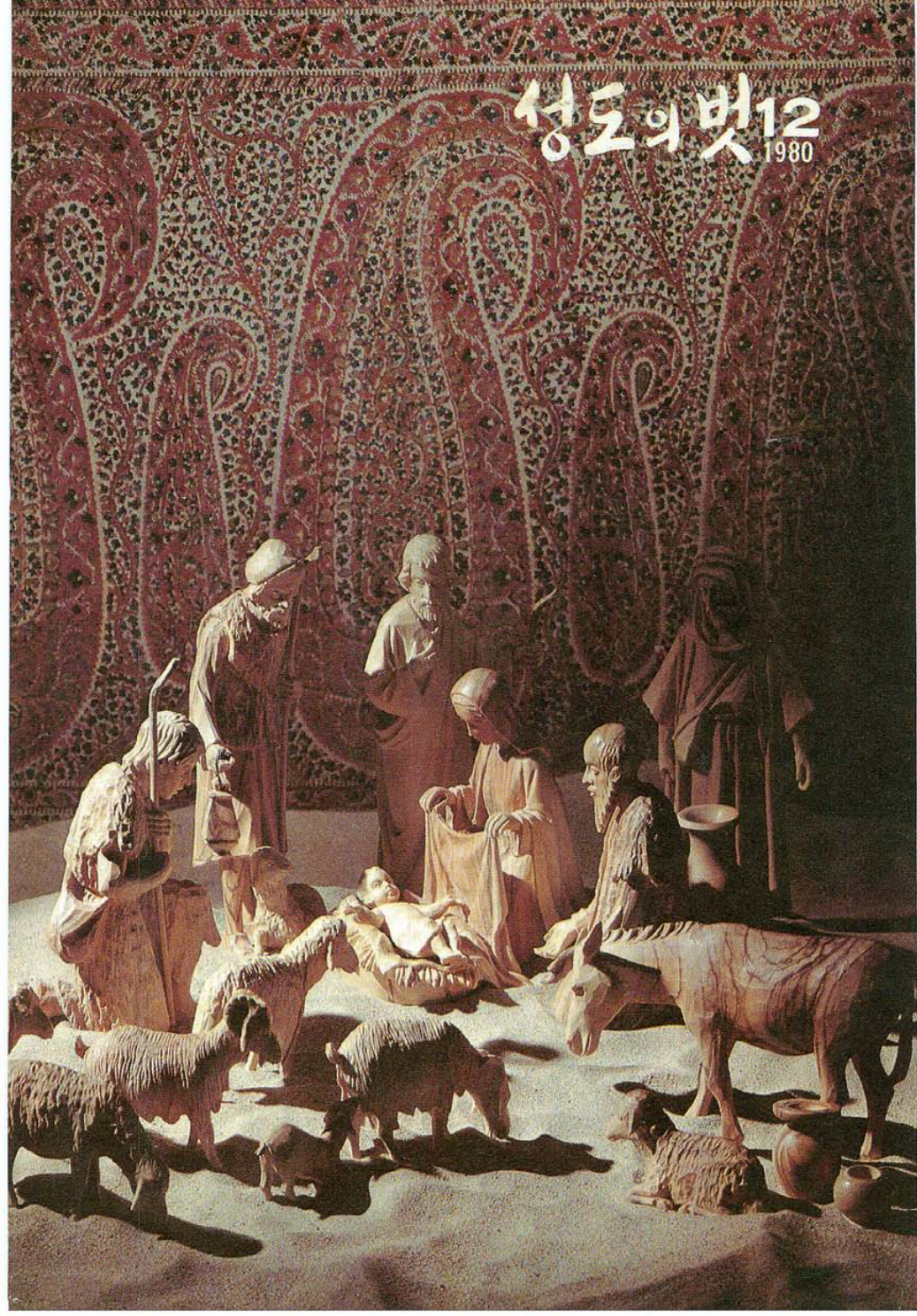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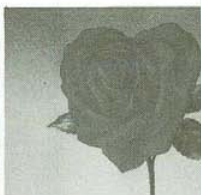


성도의 빛 12

1980





성도의 벗 12

1980

차 례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가장 큰 은사—

아버지의 사업을 행함.....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1
우리 집의 성탄절에밀리 스미스 스튜워트..... 6
큰 기쁨의 좋은 소식.....진 에스 마샬..... 8
질 의 응답 10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김볼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롱니

십이사도 정원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미안 제이 케이 패커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히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교문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렉스 디 피네가
찰스 에이 디데이
조지 피리
에프 엔지오 부쉬

우리 와드 음악 프로그램은

어떻게 결실을 맺었는가?..... 루스 리스.....12
순결.....힘의 원리 스티브 걸리랜드.....15

내 친구..... 21

성탄절에 태어난 동생쉐리 존슨.....23

동물의 옷머레이 티 프링글.....26

심심풀이 28

경고의 휘파람(물문 일지)펜튼 휘트니.....29

“오늘날 예언자가 있습니다”라고

그녀가 말했읍니다 로잘린드 존슨.....30

장미꽃 위의 먼지엘렌과 조이스 엠 쉐논.....35

비웃지 않을 사람데이비드 캐프론.....37

마음 속에서

그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잭 에이치 고슬린드 이세.....41

지역 지도자 메시지한 인상 지역 대표.....44

지역 소식 45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8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200원이며, 1년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4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185호, 제18권 제12호

동 호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0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킬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507K0 PRINTED IN SEOUL, KOREA 12/80 International magazine

© 1980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편집 조유

가장 큰 은사— 아버지의 사업을 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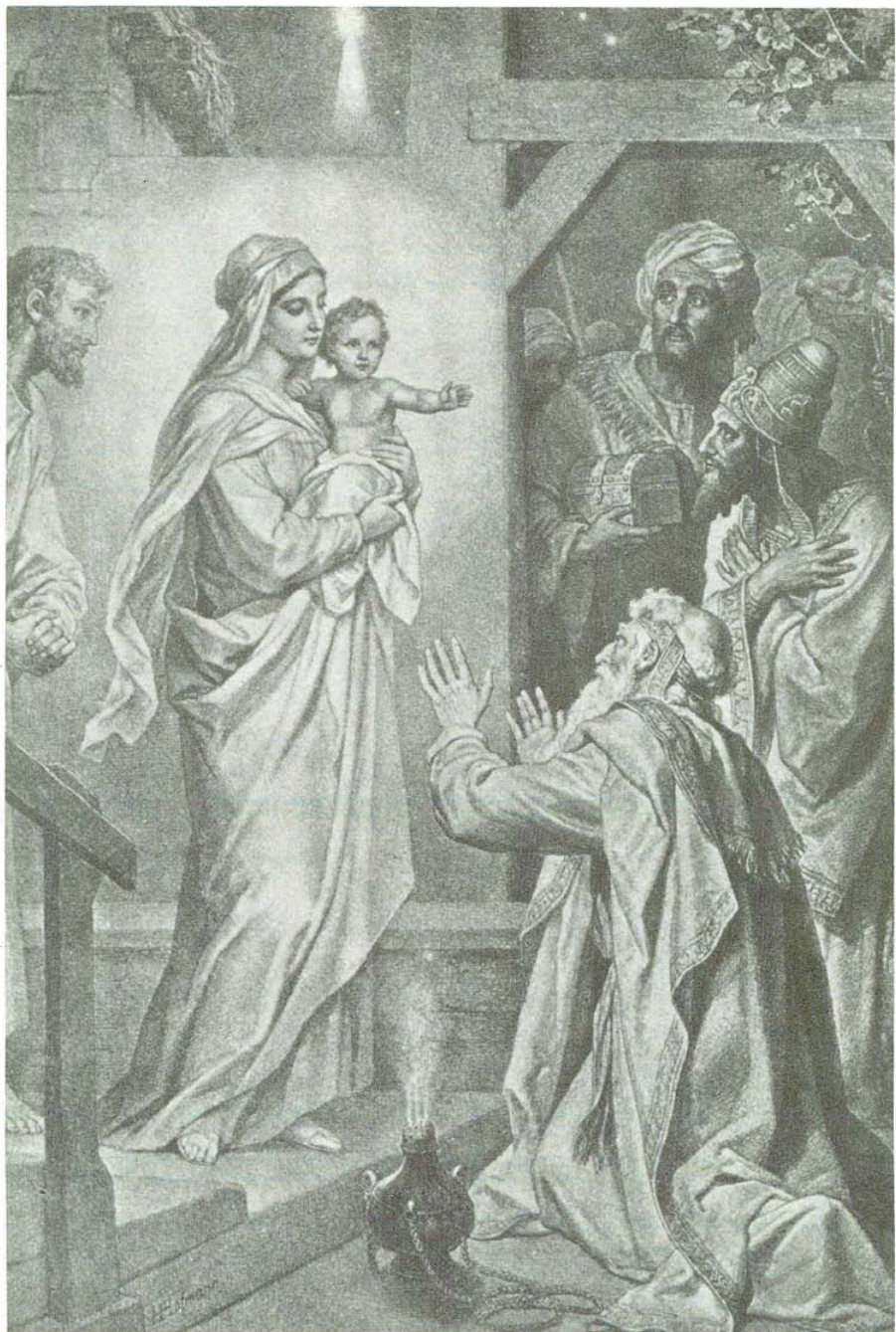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이 거룩한 명절을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히 즐거운 일입니다.

열 두 살 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그를 찾아온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신 구세주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사흘 동안이나 걱정스럽게 찾아 다녔다고 말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눅 2:48) 아들의 대답은 이러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눅 2:49)

우리가 아버지의 사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느끼는 것보다 더 큰 개



인적인 만족감과 포근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다른 사업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구약의 이사야, 노아,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과 리하이, 니파이, 베냐민왕 등 신세계의 예언자들의 예언과 표적이 성취된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기념합니다. 누가는 가장 축복된 이 소박한 탄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만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눕혔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 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누가복음 2:6-7, 9-14)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다른 예언들이 성취된 것과 주님의 교회가 발전한 것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1980년은 복음의 위대한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가져다 줄

복음 회복 15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지난 150년 동안에 이 교회는 1830년에 6명으로 시작하여 4백만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오하이오주 쿨랜드에서 최초로 조직되었던 스테이크의 수는 전세계에 천여 개의 놀라운 숫자로 증가하였습니다. 선교사의 수도 1830년에 16명에서 오늘날 3만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830년 이교회 회원들이 겪은 시련은 우리가 래 미래에 대비하여 준비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과 그들의 후손이 교회를 위하여 치른 희생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은 이 회복된 교회의 초기 성도들이 바친 헌신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희생은 성도들이 대 솔트레이크 계곡에서 첫해를 보낼 때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해 첫번째 겨울에는 먹을 식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주님을 섬기기로 서약했습니다.

1847년 12월 25일, 솔트레이크 계곡에서 맞이한 첫번째 성탄절에 관하여 로버트 블러스 형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눈은 거의 없어졌고 날씨는 화창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포 소리에 잠을 깬고, 어떤 사람들은 일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오락을 즐기면서 하루를 지냈습니다……나는 나와 함께 일리노이에서 쫓겨난 오랜 친구 한 사람을 방문하여 함께 훌륭한 성탄절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생각이 미치자 즐거움은 사라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천여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나는 봄이 오기 전에는 도저히 그들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블러스형제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자기

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을
 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보호
 하시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기
 가족을 지켜 주실 것이라고 말하였습
 니다.

젊은 자매 한 사람은 대 솔트레이크
 계곡에서 맞은 첫번째 성탄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계곡에서의 첫번째 성탄절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모두 여느 때와 같
 이 일하였습니다. 남자들은 쭉을 모았
 고, 어떤 사람은 눈이 왔지마는 땅을 갈
 기도 하였습니다. 땅은 아직도 부드러
 웠고 거의 하루 종일 쟁기를 사용하였
 습니다. 성탄절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성탄절을 축하하였습
 니다. 그날 우리는 중앙에 세워 놓은 것
 대 주위에 모여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모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모두 개회 기도
 참여하였으며, 그날의 모든 말씀을 향
 상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감사
 와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불친절
 한 말은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사람들
 은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위대한 사업
 에 대한 신앙으로 인하여 소망에 부풀
 어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우리는
 모두 서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
 니다. 어린이들이 연극을 하였고, 그날
 밤 모닥불 주변에서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어서들 나가자

“그날 우리는 만찬으로 삶은 토끼와
 약간의 빵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몇 마리의 토끼를 사냥했기 때문에 그

것이 만찬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
 이 충분히 먹었습니다. 나는 완전한 평
 화와 평강이라는 의미에서 일생 동안에
 결코 이보다 더 즐거운 성탄절을 지내
 보지 못하였습니다.”

시온을 건설하는 당시에 성탄절은 평
 화의 절기이면서 어려움의 절기이기도
 하였습니다. 1847년 겨울에 개척자들의
 성품이 나타났으니 대 솔트레이크 계곡
 의 성도뿐 아니라 서부로 이주할 기회
 를 기다리는 형제 자매들의 성품이 모
 두 나타났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는 성탄절 이틀 전에 다음과 같은 공식
 서한을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은……(미주우리)강 동
 편 독으로 즉시 집합하고……가능한 한
 속히 돈과 물건을 가지고 집합하기 바
 랍니다. 또한 어린 가족을 모으시기 바
 랍니다. 가족은 이곳에서 평강히 필요
 한 것이며 팔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곳에 모이면,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직접 산을 넘게 되며, 할 수 없는 사람
 들은 최근에 비어 둔 땅에서 가족과 곡
 식을 기르고……산업을 일으키는 등의
 일을 하여……어린 가족들이 자랄 수
 있게 할 것이며, 그들은 서로 돕고 함
 께 일함으로써 곡식과 식량을 재배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마차를 만들며……
 이런 방법으로 쉽고 안전하게 마차와 가
 축과 식량 등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제임즈 알 클라크, 대관장단 메시지,
 1 : 329)

이 용감하고 신앙심이 깊은 성도들이
 겪은 희생과 고난을 알게 되면 지금 우
 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에 크게 감사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탄절의 메
 시지와 은사는 하나이며 똑같은 것이니
 ……곧 영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서 가족과 함께 사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와 영생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이 값진 은사를 받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은사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헌납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가족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자기 일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성탄절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의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한 성탄절은 값비싼 선물과 장거리 여행을 하며 휴가를 즐기는 성탄절이 아닙니다. 그러한 성탄절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들 자신의 것을 주었던 절기요, 우리가 무언가 우리 자신의 것을 주었던 절기였습니다. 그러한 성탄절은 어린 아이가 처음으로 그림을 그린 성탄절일 수도 있고, 이웃 집에서 개인적인 감사의 글이 적힌 카드를 받은 성탄절일 수도 있으며, 할아버지로부터 격려의 글이 적힌 카드를 받은 성탄절일 수도 있고, 어머니가 불러주는 성탄절 자장가를 들으며 잠든 성탄절일 수도 있으며, 아버지로부터 구세주의 탄생 이야기를 들은 성탄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탄절과 선조들의 구세주에 대한 헌신의 이야기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가 해마다 이 절기에 그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행하는 수고에 대해 계속해서 지지하시고 도와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과 가족과 지역 사회에 있어서 도전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복음에서 말하는 화평

이란 물질적인 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하하는 탄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간증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탄절의 의미를 이해하고 감사히 여길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하나님을 기꺼이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사업을 행하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은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는 그의 영의 자녀이며, 그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요 3:16) 하심을 알게 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사불멸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축복을 받았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나는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이 누구이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알게 되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치르신 희생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즐거운 성탄절과 기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 동안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지니며 생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우리 집의 성탄절

에밀리 스미스 스투워드

우리는 성탄절을 신봉합니다. 조지 엘버트 스미스가에 속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한 해 중에서 가장 축복되고 소중한 절기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조상들이 우리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과 같이 언제나 사랑스럽고 활기에 찬 성탄절이 되게 노력합니다.

우리 가정의 성탄절 준비는 항상 아주 특별합니다. 주의깊게 계획을 세우고, 엄밀하게 예산을 세우며 신중하게 선물을 택합니다. 부모님은 항상 우리가 성탄절에 사용하는 돈, 음식 및 기타 여러 가지 물건은 반드시 넓은 지역으로 퍼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배울 수 있게 계획하셨습니다. 성탄절 계획은 항상 어머니가 상호부조회를 위하여 계획하셨던 훌륭한 상자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머니는 그 상자 안에 우리가 스스로 계획한 맛있는 것을 모두 넣으셨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이 상호부조회 성탄절 상자의 내용물을 모았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면 썰매에 싣고는 눈 위로 끌고 가서 17와드 상호부조회 실까지 가져 갔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언제나 아버지의 전통인 우리 가정의 풍습이 시작되는데 그 풍습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사람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잘 기억해 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물질적인 면에서 기억해 주지 않아도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성탄절의 선물이나 음식은 자주 잊고, 지나쳐 버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진정한 사랑을 보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탄절이면 항상 우리를 데리고 관례대로 방문하는 잊혀진 친구들을 방문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갔을 때 나는 매우 어린 소녀였습니다. 나는 도십지 한가운데 매우 가난한 빈민촌이 있는 긴 골목을 걸어 갔던 일을 기억합니다. 어느 조그마한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침대에 누운 노파가 누워 있는데 매우 슬프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자 노파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노파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을 때 노파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와 주어서 고맙군요. 당신이 와 주지 않았다면 나

는 성탄절을 맞지 못했을테니까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날 하루를 아주 보람있게 보냈습니다.

내가 결코 잊지 못할 성탄절은 아버지께서 몹시 편찮으셨던 때였습니다. 병원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던 터이라 성탄절을 잘 보낼 만한 여유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훌륭한 성탄절을 맞게 해주고 싶었으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아버지의 병환 때문에 밀려 있던 십일조를 연말 전에 다 바쳐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녀들도 다른 어린이들과 마찬가지로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할 자격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년과 같이 선물을 주고 음식을 차리면 십일조를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십일조를 바친다면 자녀에게 아무 선물도 사 줄 수 없었습니다.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녀를 위하여 무언가 해주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큰 유혹을 받게 될 것이므로, 다른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십일조를 바쳐야 한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급히 의투를 걸치고는 감독에게 가서 완전한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머니의 마음을 몹시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성탄절 선물로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실망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눈덮인 길을 걷고 있는데 훌륭한 이웃인 마크 오스틴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미스 자매님, 잠깐만요. 스미스 형제님의 오랜 병환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조그만 선물을 드리고 싶습

니다. 자매님께서 성탄절을 위해서 특별한 것을 사십시오. 아마 오랫동안 아무 것도 사지 못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목이 메어 간신히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수표를 받아 쥐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즐거움과 감사로 벅찼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켜고 수표를 보니 어머니가 십일조로 바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금액의 수표였습니다.

성탄절 아침이 되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십일조 정산 성탄절이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십일조의 축복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십일조 정산 성탄절 이후로 나는 여러 나라에서 많은 성탄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지냈고 미국에서도 지냈으며 미국 내에서도 여러 주에서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풍부한 성탄절을 보내기도 했고 초라한 성탄절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기도 했고 그다지 즐겁지 않은 성탄절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슬픔을 가졌을지라도 아버지는 항상 성탄절을 필요로 하면서 우리 가족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성탄절에는 항상 어린시절부터 우리의 머리에 박혔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생각으로 훌륭한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사실 성탄절뿐만 아니라 이같은 사상으로 점철된 아버지의 매일 매일의 생활은 우리의 마음에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신봉합니다. *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진 에스 마샬

여 .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
 • 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
 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일
 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
 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
 라…… 저가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눅
 1 : 26—27, 30, 31, 33)

남 :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

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박으랴.”(요 19: 2-3, 15)

여: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동네
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올라가니”(눅 2: 4)

남: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
고 해골(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요 19: 17-18)

여: 요셉도…… 갈릴리……에서 그 정
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눅 2: 4-6)

남: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
을새”(요 19: 17-18)

여: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
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
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노 우리
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
배하러 왔노라 하니”(마 2: 1-2)

남: “해가 빛을 잃고……성소의 휘장
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눅 23: 45)

여: “만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눅
2: 7)

남: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
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
로 말하되……누가 언나 제비뽑자 하
니”(요 19: 23-24)

여: “구유에 눕혔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눅 2: 7)

남: “[아리마대 요셉]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
려 세마포로 싸고……무덤에 넣어 두니”
(눅 23: 52-53)

여: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결

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
매 크게 무서워 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
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
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
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
시니라.”(눅 2: 8-11)

남: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기운 것
을 보고……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하니……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
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눅 24: 2,
4-6; 마 28: 6)

여: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
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
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
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들 중에 평화로다.”(눅 2: 13: 14)

남: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
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
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 34-35)

여: “보라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
리스도 주시니라.”(눅 2: 10-11)

남: “보라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
리스도 주시니라.”(눅 2: 10-11)

※두 사람이 낭독하게 되어 있는 낭독
극장은 성찬식, 분반 모임, 가정의 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저자는 남자와 여자가 읽게 하였지만
남녀에 구애없이 두 사람이 읽을 수 있
다. *

질 의 응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제이 루이스 테일러, 유타 대학, 솔트레이크 신학 연구원 교수이며 이스트 밀크리크 제16와드 감독.

유아 축복 의식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명명식과 축복을
함께 드려야 합니까?

현 재 사용되고 있는 멜기세덱 신권 지침서(제8편 “의식” 24페이지)는 유아 축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 “1. 의식 집행자가 유아를 받쳐 들거나, 나이가 든 아이인 경우 어린이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린다.
- “2. 기도할 때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
- “3. 의식을 집행하는 권능(멜기세덱 신권)을 말한다.
- “4. 유아에게 이름을 준다.
- “5. 영의 지시에 따라 축복의 말씀을 덧붙인다.
- “6.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맺는다.”

대부분의 의식과 축복 또는 “성별” 의식에서 신권 소유자는 기도에서 행하는 것처럼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의식을 받는 사람에게 직접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권 소유자는 주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축복을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감을 받아 실제로 축복을 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아 축복의 경우, 특별히 이름을 주는 명명식에서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한 가지는 유아는 우리가 직접 그에게 말을 하여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하지만 신권 소유자는

단지 유아에게 이름을 주시도록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줄 수 있는 권능을 받았읍니다. (“이 아기에게…… 이라는 이름을 주노라.”)

마찬가지로 이 의식의 축복 부분에서 벨기세텍 신권 소유자는 축복을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지시하는 대로 직접 축복을 말하고 줄 권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같은 절차는 벨기세텍 신권 지침서의 지시 사항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교리와 성약 20편 70절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가진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은 교회 회원이 모인 가운데 장로 앞에 자녀를 데려 나와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종류의 축복을 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의식의 축복 부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나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다른 신권 소유자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어떤 경우에는 구체적인 축복이나 약속을 주도록 주님의 영감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주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말해서, 의식에는 구하는

형태와 축복을 주는 형태가 모두 적절하게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권 소유자는 영감의 지시에 따라 아기에게 축복을 줄 수도 있고, 영감의 지시에 따라 축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는 것이 이상적인 것입니다. (니삼 19:24 참조)

주님의 신권 대리인이 되어 주님을 대신하여 행하고, 주님께서 직접 계시다면 행하셨을 바를 행하고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엄숙한 책임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축복하려는 아버지는 머리 깊이 생각하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자신을 준비하여 축복을 줄 때 영의 속삭임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축복하고 이름을 주는 의식을 집행할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식은 아니지만) 어린 자녀를 주님과 가족과 교회 앞에 데리고 나와서 주님께 헌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일입니까!

자녀에게 이름을 주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며 기도하고, 자녀를 위한 우리의 가장 큰 소망과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갖고 직접 개인적으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



우리 와드
음악
프로그램은
어떻게
결실을
맺었는가?

루스 리스



우리 와드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와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일 것이다. 우리에게서는 와드에 있는 음악적 자질을 갖춘 사람 수보다 더 많은 음악가가 필요하였다. 우리는 이 문제로 여러 해 동안 애를 써 왔으나 별로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가 와드 음악 책임자인 나는 감독단과 함께 정기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큰 성공을 거

두게 된 것이다.

우리의 계획은 성인들의 음악적인 기량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청소년의 음악적인 기량을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감독단은 와드에서 성인 몇몇에게 피아노, 율개, 지휘, 성악 등을 공부하도록 부탁하는 구체적인 부름을 주었다. 또한 그 성인들에게 앞으로 특별한 때에 와드 예배 시간에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도록 준비하라는 목표를 주었다.

성인에게 그런 부름을 준 것은 와드 음악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청소년도 준비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와드에는 훈련받은 음악가들이 없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의 이러한 계획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와드 예배 의식에서 음악이 활기있고 즐거운 부분이 되도록 만드는 데 크게 영향을 주게 되었다.

우리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음악을 공부하고, 음악을 중요한 예배 의식의 하나로 생각하게 동기를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첫번째 목표라고 생각하였다. 이 목표는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었다. 와드에서 중심이 되는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자 곧 음악에 참여하는 것을 즐겨하게 되었다.

청소년 음악 프로그램에는 4가지 부분이 있었다. 피아노 또는 율개 훈련, 지휘, 합창 및 기타 악기 훈련 등이 그것이었다.

우리는 피아노 또는 율개 프로그램을 통하여 초등학교에서는 피아노로, 성찬식에서는 율개로, 초보자가 한 해에 두세 번씩 전주와 후주를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8세에서 12세에 이르는 어린이들도 참여하였다. 음악 교

사는 어린이도 연주할 수 있는 간단한 피아노 곡을 찾아 주었다. 전주나 후주를 연주하는 것은 독주나 반주를 할 때보다 훨씬 긴장감이 적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참으로 교회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즐겼으며, 이 프로그램은 훌륭한 목표를 주어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초보자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소년이 많이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자주 연주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항상 성인 음악가가 옆에서 시계를 보아 주고, 책장을 넘겨 주며 때로는 함께 반주해 주기도 하였다.

중급반 학생들도 전주와 후주를 연주하였으며, 우리는 그들에게 초등학교에서 노래를 반주할 기회를 주기도 하였다.

고급반 학생들은 상향회와 신권회에서 교대로 찬송가를 반주하였다. 그들에게는 성찬식에서 독주하도록 부탁하기도 하였다.

지휘법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회 합창 지휘 실습인데, 그 모임은 정기적으로 와드에서 열린다. 이 실습 모임은 그룹 단위로 열리며,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이 모임이 재미있고 유익하며 즐거운 모임이 되도록 노력한다. 실습 모임을 이수한 회원은 상향회와 신권회에서 지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우리의 목표는 음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모든 청소년은 18세가 되면 적어도 간단한 찬송가를 지휘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것이다.

합창 프로그램은 노래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로부터 시작하였다. 우리는 작은 앙상블에서 시작하여 점차로 완전한

합창단으로 성장하였다. 오래 가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옆에서 권유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권유하였다.

우리의 수고는 실제로 보상을 받았다. 청소년 합창단은 정규 모임은 아니더라도 특별한 경우에 합창을 했으며, 그들의 훌륭한 합창은 와드 회원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물론 합창단원은 자기가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베이스 파트의 한 소년은 친구들과 부모의 압력에 못이겨 마지못해 첫번째 연습에 나오게 되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세요.” 나중에 나는 개인적으로 그를 도와 주면서(이러한 일은 합창 단원에게 흔히 있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들 청소년들은 음악 천재들이 아니라 단지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를 위하여 베이스 부분을 간단하게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는 싫다고 말하였다. “악보대로 불러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재미 있어요.”

우리는 부수적으로 요즈음 유행되고 있는 형식의 음악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은 찾지 못하였다. 우리는 찬송가에서 애국가, 캐롤, 합창곡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분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청소년 합창단이 공연할 때 다른 청소년들이 반주해 주기도 하였다.

악기 음악 프로그램도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 왔다. 우리 와드의 청소년들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트럼펫, 프렌치 혼, 트롬본 등의 연주를 공부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교회에서 연주하는

기회를 가져 보았다. 이들은 독주로부터 12명의 합주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연주하였다. 우리는 또한 몇몇 청소년 악기 연주자에게 합창을 반주하는 기회를 주었고 때때로 모임의 전주와 후주를 연주하게 하기도 하였다.

우리의 수고도 모두 훌륭한 보상을 받았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와드 내에는 34명의 청소년(9세부터 17세까지)이 음악을 공부하고 있다. 다른 11명의 청소년은 적어도 1년 동안 음악을 공부했으나 현재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성공한 데에는 두 가지 큰 원인이 있다. 첫째, 와드 음악 책임자를 연주자가 아니라 교육가이자 조직자로 생각(음악가가 아닌 사람이라도 똑같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했고, 둘째, 함께 연습하고 공연할 때 생기는 단합과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재미 등을 강조한 것이 원인이었다. 우리는 배우고, 봉사하며, 사귀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었다.

우리 와드는 큰 와드가 아니다. 우리 와드에는 12세부터 18세까지의 활동 청소년이 36명밖에 없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흥미가 점점 떨어져서, 이 36명 중에서 음악을 공부하지 않은 청소년은 겨우 6명뿐이다. 와드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 되었다. 청소년의 연주가 있는 후에 어떤 자매는 이렇게 말하였다.

“거기 앉아 있는 너 어린 아이들이 분명히 ‘언젠가 나도 거기에 참여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순결.....힘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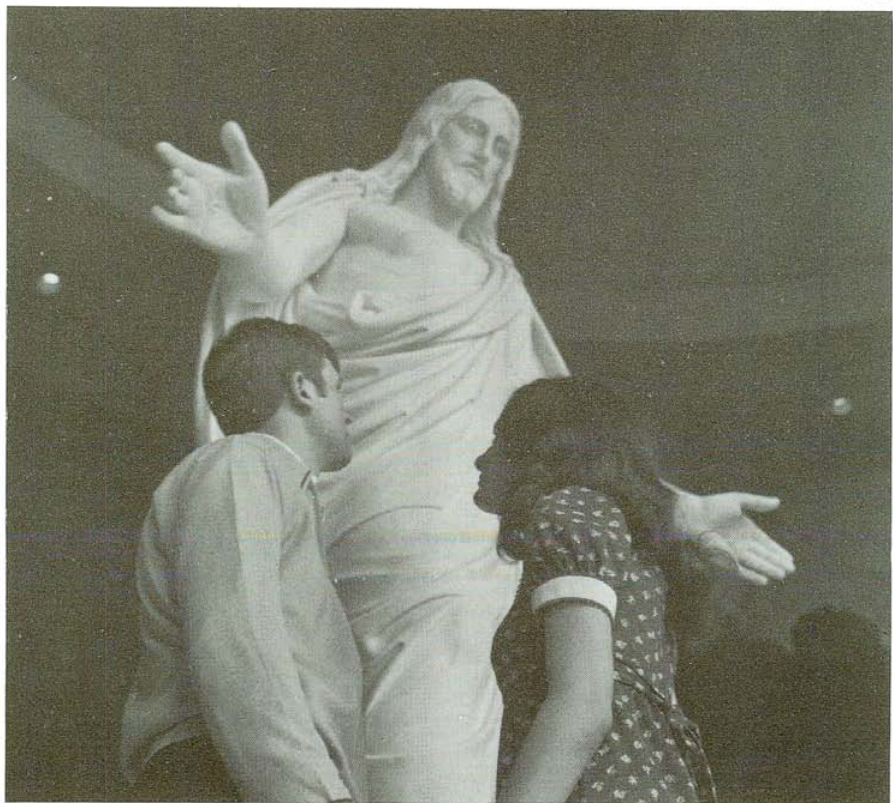
스티브 질리랜드

우리처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흔히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부모나 선생님들로부터 들은 것은 성이란 죄에 속한다는 말 뿐입니다. 순결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할 만한 것은 없습니까?”

말일성도는 틀림없이 그런 것이 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순결에 대하여 분명하고 건전한 개념을 줍니다. 특히 복음의 가르침을 일반 세상적

인 가르침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만든 종교는 육체는 악하며, 영은 육체를 이기고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복음은 정반대의 개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곧 육신은 축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육신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왔으며, 더욱 발전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육체를 우리의 일부로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육체가 없이는 충분한 즐거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성 93 : 33—35 참조) 육체가 없으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속박당하게 됩니다. (교성 138 : 50 참조) 복음은 우리가 육체와 함께 승영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고전 6 : 18)

두번째로 잘못된 가르침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적인 관계는 필요악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과 영에 따라서 행할 때 이러한 관계는 그 사람의 생활과 영혼을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킴블 대판장은 결혼 생활에서의 성관계는 “원천적으로 선한 것”(“남자와 여자를 위한 주님의 계획”, 성도의 빛, 1976년 4월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은 훌륭한 종이 될 수 있으나 무서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어느 것보다도 사랑과 행복을 키울 수 있는 강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빌리 그래함의 말씀에서 인용. “하나님의 사업을 정결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 성도의 빛, 1974년 8월호, 36페이지)

세번째 그릇된 가르침은 인간은 육체적인 본성 때문에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경전에서서는 이런 개념을 뒷받침해 주지 않습니다. 경전에서는 인간이 사탄을 따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육체와 육욕과 악마를 쫓는 자” (모세서 5 : 13 ; 교성 20 : 20 참조)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냐민왕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성신이 인도

하시는 대로 말기지……아니할진대……하나님의 적이 되리라.” (모사이야서 3 : 19)

순결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덕성이라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전 2 : 14) 결론적으로,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우리가 왜 순결의 법을 지키며 생활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일성도는 그것을 이해하며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힘과 이해력을 기를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판장은 꼭 필요한 영성의 요소는 “자아를 이기는 승리의 양식”(임프르브먼트 이라, 1969년 12월호, 31페이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결에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큰 축복은 극기심을 얻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결의 법에 의하면 사람은 배우자, 곧 합법적인 결혼 성약으로 맺어진 남자나 여자하고만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근본 정신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성적인 욕망과 거기에 관련된 행위를 거룩하고 합당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갖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악입니다. 무엇이든지 영적으로 해를 끼치게 될 것을 마음속으로 추구하는 이것은 바로 욕정입니다.

욕정은 영적으로 생산적이고 성취감

이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의 관심을 끌어내려 비생산적이며 영적으로 해를 끼치는 생각과 행동으로 기울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원대한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정신적인 마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간적인 쾌락을 위하여 모든 가치있는 것을 희생하게 할 수 있으며 아픔과 슬픔과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과거의 환경 때문에 부도덕한 욕망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욕망을 갖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욕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즉 그 욕망에 불을 붙이느냐, 아니면 욕망을 인식하고 곧 다른 느낌이나 생각으로 바꾸어 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 불 대관장님은 동성애나 그 밖에 비정상적인 변태 성욕의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일지라도 인내와 결심과 신앙으로써 그와 같은 욕망을 억제하고 정상적인 욕망을 갖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¹ 나는 상담 요원으로서 또한 감독으로서 그런 일을 여러 번 목격하였습니다.

자제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면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인가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결에 관한 성약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하는 것은 인생의 다른 분야에서도 얼마나 강하고 약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며, 실제로 어느 정도로 해의 왕국의 이상에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반면에 사탄은 사람들이 의로움이나 부적격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직면하여 이겨내는 대신에 부도덕

한 행위를 통하여 그런 감정으로부터 도망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회피는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도망하려고만 하여 그런 과정이 끝없이 계속됩니다. 그 결과 사탄은 사람들이 불순결한 행위를 통하여 깊은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순결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독특하고 유일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특정한 영화나 문학이나 상황 등은 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이 문제가 안된다고 말하지만 나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해를 입지 않고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리화시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같은 합리화 때문에 자제해야 할 상념을 더 많이 갖게 되고 억제해야 할 정신적인 환상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불을 약화시키려 하면서도 오히려 연료를 더 넣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순결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하면 할수록 나 자신의 영적인 화학 작용을 이해하여야 했습니다. 나는 영의 도움을 받아 어디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하는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자각은 마음속에 축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스 미디어와 인생이 폭탄처럼 던져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자극에 직면할 때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각에는 좌절에 직면해도 끊임없이 지속되는 신앙과 헌신이 필요하며 자기 자신을 유혹의 마수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때 생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제할 때 참으로 훌륭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의미에서 순결은 우리의 욕망과 행동을 단련하는 것이며 성에 관계되는 모든 면에서 자제력과 이해력을 얻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속되는 관계를 이룩함

순결은 또한 개인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수립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정숙한 남녀는 중요한 구혼 기간 동안에 부당한 관계에 빠짐으로써 현실을 도피하는 대신에, 이해와 대화를 증진시키고 서로의 사상을 현명하게 평가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순결은 남자를 자유롭게 하여 영원한 동반자로서의 잠재력을 키워 나가게 해줍니다.² 순결은 이 세상의 압도적인 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세상은 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결은 성인 결혼 생활의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로 생각하게 해줍니다.

세상은 또한 욕망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만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에 기초를 둔 관계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결은 만족보다 영적인 필요 사항을 더 높게 생각합니다. 순결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강조합니다. 순결은 배우자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자제심을 요구합니다. 엘마는 그의 아들에게 “걱정을 다스려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엘 38 : 12) 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킴벌 대관장은 성관계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는

자녀를 세상에 나오게 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진실로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만들어 주는 사랑”(“하나님의 사업을 정결하게 수행하기 위한 지침”, 성도의 빛, 1974년 8월호)의 표현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직접 주님으로부터 남편과 아내의 합당한 성 경험은 자녀를 낳는 일에만 국한한다는 지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아담의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난잡한 성 관계를 허용하는 어떠한 조항도 만들지 않았다는 증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류를 위한 주님의 계획”, 성도의 빛, 1976년 4월호)

이 두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이 힘을 성스럽고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께서 세워 놓으신 범주 안에 보존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지침을 줍니다.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의 필요 사항과 감수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는 이러한 거룩한 목적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힘을 장난삼아 사용하는 것도 이 거룩한 목적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필요 사항에 초점을 두고, 욕정에 불을 붙이며 극기력이 줄어들게 합니다.³ 이것도 역시 주는 것보다 쟁취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킨 부부는 대부분이 결혼 후에 이 관계에 대하여 건전한 태도를 발전시켰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결한 부부는 서로 상대방을 강화시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책임감 때문에 서로를 약화시키거나 유혹하는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말과 복장에 있어서의 절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배우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심과 염려는 육체적인 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든 면에서 정숙하고 진실할 때 보다 강하고 중요한 관계에 속하게 됩니다. 순결은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뿐 아니라 신전 성약의 자녀로 태어나 영원한 가족의 진정한 모범을 볼 수 있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보여 줍니다.

보다 풍요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립함

맥케이 대판장은 “하나님께로 가는 오솔길은 인간의 마음을 통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통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반대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성숙하고 영원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다운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적인 행위를 추구한다면 성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어렵게 됩니다. 성신의 영향력을 부인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열되며 불안감과 초조와 이기심이 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가장 큰 힘이 되고 긍정적인 힘이 되는 주님의 영이 부족하게 될 때 우리는 회의와 공포의 울가미에 걸리게 되고, 반려자가 그러한 욕구를 채워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려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배우자를 포함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필요 사항에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이런 분위기보다 더 빨리 인간 관계를 해치는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순결은 성신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하며, 오래 지속되는 모든 관

계의 기초가 되는 신뢰심을 높여 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교성 132 : 24 참조)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제자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헌납의 법을 지키며 살려면 먼저 순결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순결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는 희생과 순종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같이 행할 때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교성 121 : 45)질 것이며, “하나님의 기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야 3 : 2)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즐거움과 화평과 권세는 형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경험에 대하여 맥케이 대판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영혼 속에서 자신의 재능이 밝혀지고 진리가 커지는 것을 느끼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숭고한 경험입니다.”(임프르브먼트이라, 1969년 12월호, 31페이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생활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교회 지도자들과 그들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던 적이 가끔 있습니다. 그 후에 감동이 되고, 이제는 사물을 매우 다른 견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감독의 느낌과 문제점들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으므로 비판적이 되려는 유혹을 적게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

나눔다운 성품을 지니면 지닐수록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풍부해집니다. 모사이야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 5 : 13 참조) 그가 사시는 방법대로 살 때, 우리는 그가 염려하는 대로 염려하게 되고 그가 느끼는 대로 느끼게 됩니다. 다른 복음 원리와 마찬가지로 순결은 그를 알게 해주는데 그것은 순결이 이해력, 자제력, 사랑, 봉사 등과 같은 하나님다운 중요한 성품을 증진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유혹을 이기려는 노력을 하다가 지칠 때면 예수께서도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 : 15)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는 육체를 축복으로 받아 그 육체를 극복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와 같이 주님도 영적으로 피곤함을 느끼신 분이었습니다. (교성 19 : 18 참조) 분명히 사탄은 온갖 수단을 다하여 주님이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오래 전에 예수께서 이와 비슷한 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상태를 완전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 주시고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버릴 때 주님께서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영원히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성 58 : 42—43 참조) 구제주의 대속의 희생으로 인하여, 회개한 죄는 영원히 우리에게서 사라집니다. 여러분과 내가 자신의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성이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맡고 있는 역할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순결의 법을 주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없이 생활합니다……존경을 받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영원한 승영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스티브 질리랜드,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신학 연구원 책임자이며 일곱 자녀의 아버지로서 캘리포니아주 롱비치,레이크우드 제1와드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다.

주 :

1. 스펜서 더블류 킴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솔트레이크시티, 유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978)
2. 스티브 질리랜드, “심리학적 측면에서 본 순결”, 성도의 빛, 1976년 11월 호.
3. 보이드 케이 패커, 청남에게만, (솔트레이크시티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976년), 4—5페이지.
4. 대관장단 메시지, 1942년 10월 3일자, 제이 알 클라크, 대관장단 메시지에서 인용(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75년), 174—77페이지.



대관장단의 성탄절 메시지



예수도 한때 어린이였다

이 즐거운 절기가 오면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잘 알려진 이야기이며, 그의 희생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후기 생활에 대하여 알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의 어린 소년 시절을 마음속에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경전을 읽어 보면 우리는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로서 천사의 보호를 받았으며, 그의 지상의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천사는 헤롯왕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어 그를 안전하게 해주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베키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마태복음 2:13)

헤롯의 죽음이 알려지고 위험이 사라지자 천사가 다시 나타나 사랑이 많은 요셉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마태복음 2:20)

가족이 팔레스타인에 돌아온 후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와서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눅 2:40)

예수는 매우 겸손한 산들이 접해 있는 한 조그마한 읍인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은 성장하는 데 매우 흥미 있는 곳이었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예

수께서는 그곳에서 그의 중요한 미래를 위하여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 온갖 경험을 얻었을 것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께서는 삶과 이동과 상업의 상징인 군사 도로와 상업 도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언덕은 가파랐고, 이 높은 곳에서, 예수의 가르침과 주장에 격노한 예수의 이웃들은 그를 그곳에서 거꾸로 떨어뜨리려 하였으나 그는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그는 아마 잘릴리 바다로부터 24킬로미터 이상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았으며, 그곳에서 그는 구름, 풍랑, 파도, 모래, 바위, 배, 돛단배 등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지중해까지 그다지 멀지 않았고, 그곳에서 그는 더 큰 배와 조수와 파도와 시내, 그리고 그가 후에 설교하실 때 자주 언급하신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하여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소년 시절에 예수께서는 다보산 기슭을 오르셨을 것이며, 후에 세 사도를 이끌었던 곳을 잘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다보산을 오르는 것은 상당히 위험이 따르는 어려운 것이었지만은 자라나는 어린 소년에게는 억제할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까지 걸으셨을 것이며, 요단강에는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새알이 들어 있는 새둥지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는 여우를 보셨고 여우가 그들의 굴혈로 들어가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들뜰에 대해 아셨을 것입니다. 그는 곡식을 저장해 두는 창고 또는 공간에 대하여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수고에 대하여도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목수의 가정에서 자랐으며, 목재 조각, 들보, 자 등에 대하여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마 여러 번 혼자 고기잡이를 하셨을 것이며, 어머니를 도와 빵을 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는 가시에 대하여 아셨을 것이며, 아마 그의 말에서 가시를 뽑아낸 적도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무화과와 영경귀를 보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모든 경험이 그의 일생의 일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것들에 관하여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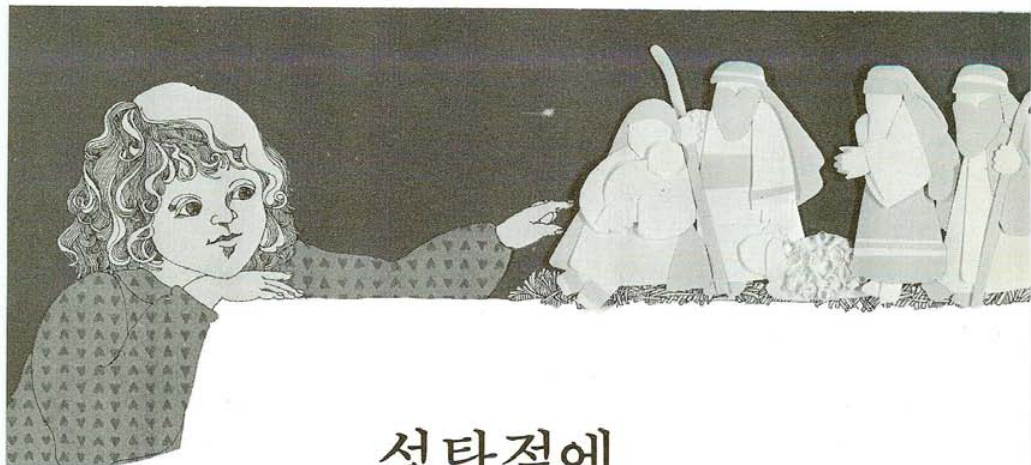
예수님은 양에 대하여 알고 계셨고 양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없이 방황하다가 길을 잃는 양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양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으리라.”(니삼 15 : 24)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요 10 : 11)

우리가 선물을 받고 즐거운 성탄절 캐롤을 부르는 이 절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선물인 그의 생명을 주신 선한 목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예수님이 한때 어린이였던 것과 같이 지금 어린이인 여러분을 우리는 사랑하고 있으며 이 성탄절에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을 기원합니다. *



성탄절에 태어난 동생

체리 존슨

세상은 눈으로 덮여 있고, 어딜 가나 성탄절 장식이 아름다웠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라디오에서 울려 나오고 사람들은 미소짓고 웃으며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인사했다. 금년 성탄절은 브레나에게는 더욱 더 신이 나는 성탄절이었다. 브레나는 엄마에게 “빨리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하고 말하였다.

어머니는 웃으면서 “넌 해마다 그러더라.”하고 말씀하셨다.

브레나가 말하였다. “하지만 이번 성탄절은 달라요! 이년 동안 동생이 있기를 바랐었는데 이번 성탄절에는 동생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아가는 성탄절 후에 태어날텐데.”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브레나는 단호하게 말하였다. “그렇

지 않아요. 이번 성탄절에는 꼭 동생이 태어나게 될 거예요.”

어머니는 브레나를 안아 주셨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니 엄마도 참 기쁘구나.”

“아가에게 우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제가 갈아 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언니가 될 거예요.” 브레나는 이렇게 약속하였다.

“그렇게 말고.” 어머니는 저녁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가시면서 브레나의 검은 곱슬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브레나는 식탁에 앉아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멋지고 날씬했던 때를 기억하였다. 이제는 엄마의 몸이 커졌고 걸음걸이도 둔해 보였다. 어머니는 일을 하다 말고 간혹 허리를 두드리셨다.

브레나의 눈길은 엄마와 함께 종이로 정성을 들여 장식해 둔 아기 예수의 탄생 장면에서 멈추었다.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듯이 마리아의 위로 몸을 구부리고 있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팔에 안고 짚 위에 앉아 있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께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으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데까지 다가가고 있었다. 브레나는 목자들이 귀중한 아기를 좀더 잘 보려고 앞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녁에 사라다 먹을까?” 어머니가 브레나의 생각을 가로막으셨다.

“좋아요.” 브레나가 대답하였다. “제가 도와 드릴까요?”

“그래.” 어머니가 대답하셨다.

브레나는 어머니 곁으로 가서 양상치 일을 뜯는 것을 도왔다.

“이제 나흘밖에 안남았는데 아기가 성탄절이 되기 전에 태어날 것 같으니?”

어머니가 물으셨다.

브레나는 다시 아기 예수의 탄생 장면으로 눈길을 돌렸다. 아기 예수를 보는 마리아의 눈길에는 부드러운 무엇인가가 있었다.

브레나가 친철히 말했다. “네. 꼭 그럴 거예요.”

“엄마도 그랬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크게 숨을 내 쉬고는 허리를 두드리셨다.

“괜찮아요 엄마?” 브레나가 물었다.

어머니는 “그래 아무 일 없단다. 좀 피곤할 뿐이야.”하고 대답했다.

“엄마 앉아 계세요. 제가 사라다 만 들게요.”

어머니는 친철히 부엌 식탁으로 가셨다. 브레나는 어머니가 이상한 걸음걸이로 식탁쪽으로 걸어가는 친철히의 자에 앉는 모습을 지켜 보았다. 엄마가 몹시 아프신 모양이라고 생각하면서 브레나는 다시 한번 마리아의 종이 모형을 보았다.

“어떻게 하루 종일 나귀를 타고 있었을까요?” 브레나가 물었다.

“누구말이냐?”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마리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온종일 나귀를 타고 여행할 수 있었을까요? 배가 부르고 불편했을 텐데요.”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셨다. “무척 힘이 들었을 거야.” 어머니도 마리아의 모형을 바라보셨다.

한참 동안 두 모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눈에 고였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셨다.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이 픽

가깝게 느껴져요. 다른 어느 때보다 더 가깝게 느껴져요. 아마 이번 성탄절이 저에게는 제일 멋진 성탄절이 될 것 같아요.”

이른 아침에 브레나의 아버지가 살며시 브레나의 방으로 들어오셔서 가만히 브레나의 어깨를 흔들며 깨우셨다.

“브레나, 이제 네가 누나가 되었다.”

“네?” 브레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새 아기 동생이 생겼어.”

브레나는 아빠의 목에 매달리며 “내가 누나가 되었어요. 엄마는 어때요? 언제 집에 오세요? 아기 이름은 뭐예요?”라고 말했다.

“애야, 하나씩 물어렴. 엄마는 건강하시고, 성탄절 전날에 집에 오실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야, 신난다!” 브레나가 소리쳤다.

“그리고 엄마가 네게 아기 이름을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구나.”

“그건 쉽지요. 조셉이라고 하면 어때요?”

아버지는 깊이 생각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저 좋은 생각이구나. 자, 꼬마 숙녀님, 이제 다시 주무세요.”

아버지가 방을 나가셨다. 그러나 브레나는 너무 기뻐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마침내 브레나는 살그머니 부엌으로 가서 난로 위의 작은 불을 켰다. 찬장 위의 예수님 탄생 장면에 희미한 불빛이 비쳤다. “나는 오랫동안 동생을 기다렸지만, 온 세계는 이 아기를 기다렸었지.”하고 브레나는 속삭였다.

브레나는 찬장으로 다가가서 어린 아기를 손으로 더듬고 마리아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당신이 아마도 예수님을 사랑한 첫번째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아기를 사랑한 첫번째 사람 중의 하나이고요.”라고 브레나는 부드럽게 말하였다.

브레나는 다시 한번 푸른 강보를 어루만졌다. 그때 한 생각이 떠올랐다. 브레나는 미소를 지었다. “졸곧 동생이 생기기를 고대해 왔었는데 이젠 내가 누나가 되었어. 그걸 몰랐네!” 브레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브레나는 다시 한번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고는 불을 끄고 침대로 돌아갔다.

다음 이틀 동안은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다. 그러나 결국 성탄절 전야가 되었다. 아버지와 브레나는 어머니와 아기를 데리러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는 브레나의 불에 입을 맞추고는 물으셨다. “조셉을 안아 볼래?”

“조셉?” 브레나가 소리쳤다.

“성탄절에 태어난 동생으로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겠니.” 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

브레나가 팔을 내밀자 어머니는 아기를 브레나의 팔 위에 놓아 주셨다. 따듯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브레나를 감쌌다.

“누나가 되어 기분이 펍 좋아요.” 브레나가 말하였다.

조심스럽게 브레나는 조셉의 조그마한 붉은 얼굴에서 담요를 벗기고는 웃으며 쳐다 보았다.

“아이 예뻐라!” 브레나가 소리쳤다. 이미 브레나는 아기를 사랑하고 있었다.

브레나는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기억하였다. 그 아기 역시 브레나의 형제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생일을 내일 축하할 것이다. *

거위가 신을 신고, 황소가 선글라스를 쓰며 당나귀가 바지를 입은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세계를 여행해 보면 여러분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지만 동물이 이처럼 이상한 옷을 입는 데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상한 광경을 볼 수 있는 곳은 폴란드와 유럽의 다른 여러 지역입니다. 폴란드의 많은 농부들은 가난하여 트럭을 살 여유가 없으며, 트럭이 있다 하더라도 휘발유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거위가 시장에 갈 때가 되면 거위는 하루 종일 걸어야 합니다. 농장으로부터 장터까지는 거친 길로 상당히 멀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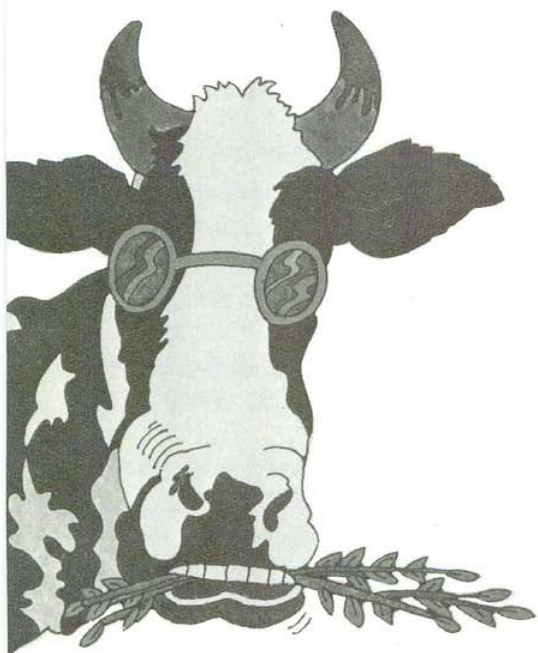


동물의 옷

머레이 티 프링글

문에 농부는 우선 가축에게 신을 신기는 준비부터 해야 합니다. 거위에게 신을 신기는 것은 간단한 일이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따뜻한 타르 위로 왔다 갔다 하게 한 후에 모래발을 걷게 합니다. 그러면 거위 발에 문은 타르에 모래가 묻어 거위의 갈퀴 발에 두터운 각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거위는 농장에서 장터까지 먼 길을 발이 아프지 않고 여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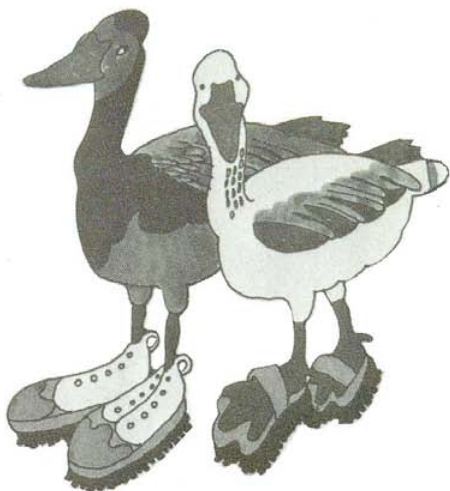
왜 황소가 선글라스를 써야 할까요? 대부분의 황소는 선글라스를 쓰지 않지만 러시아의 스텝 지대에 사는 황소는 안경을 씩니다. 그곳은 일년에 6개월 동안 땅이 눈으로 덮여 있으며, 가축은 먹울 풀이 눈에 덮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또한 강렬한 태양이 눈에 반사되어 동물들은 무엇을 보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에는 그들은 후각에 의존해야 했는데 누군가가 이점에 관심을 두어 이들 가축을 돕기 위한 무엇인가가 행해져야겠다고 생각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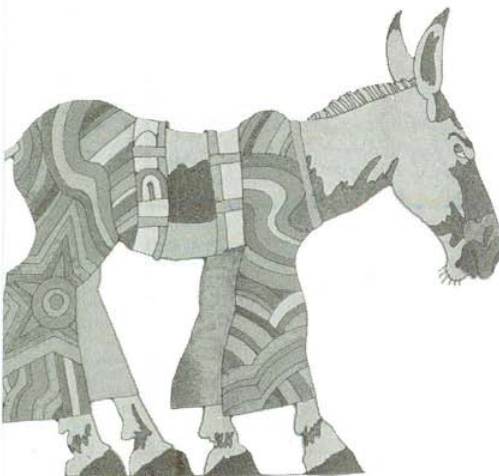
그 해답이 결국 검은색 안경이었습니
다. 그러나 어떻게 황소에게 안경을 씌
우되 황소가 불편을 전혀 느끼지 않아
벗어버리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
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결책
이 나왔습니다. 이제 스텝 지대의 많은
황소들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며 눈부
신 햇빛으로 장님이 되는 것이 문제되
지 않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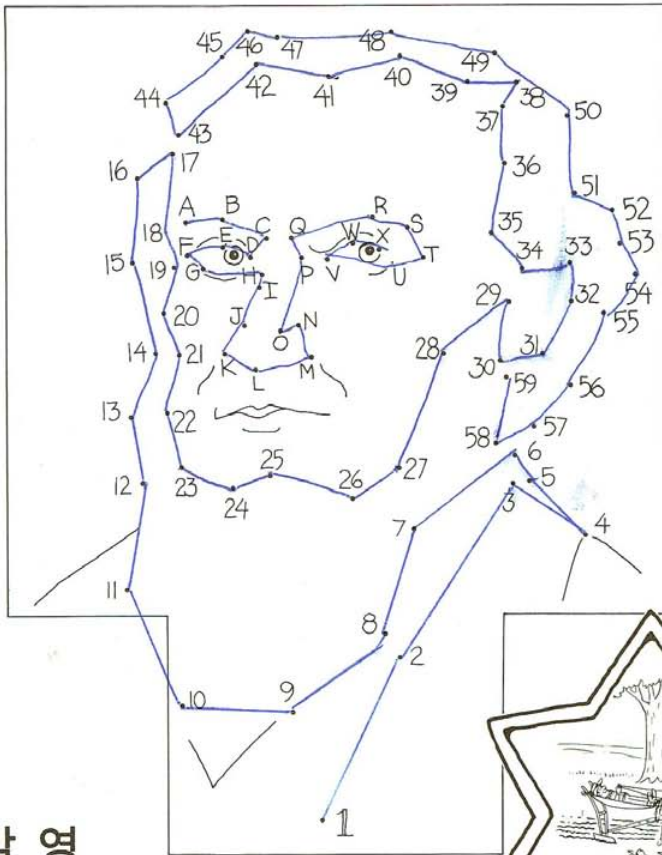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당나귀가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프랑스
의 서해안을 방문한 사람은 이러한 광
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채소밭과 과수
원에서 일하는 이들 동물들은 여러 해
를 두고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당나귀
는 다리가 넷이기 때문에 두 벌의 바지
가 필요합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의복
을 입는 데에는 매우 심각한 이유가 있
습니다. 이곳에는 곤충의 배들이 섬의
해안으로 몰려드는데 이들 곤충은 바지
를 입고 있으면 물지는 못하기 때문입
니다.



농부의 아내들은 당나귀 바지의 각 짝
을 꿰매어서 줄로 당나귀 몸통에 연결
시킵니다. “당나귀 옷”은 아무 옷감으
로나 만드는데 때로는 매우 화려하게
만들어 입히기도 합니다. 바지 한 짝은
줄 무늬의 바지인데 다른 한 짝은 체크
무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신을 신은 거위나
안경을 쓴 황소나 바지 입은 당나귀 등
에 대하여 듣거나 읽게 될 때 이것이 거
짓말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
고 우리의 동물 친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좀더 편리한 것을 만들어 준 것이
매우 사려깊고 친절한 행위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





브리감 영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제2대 대관장인 브리감 영은 일리노이주 카테지에서 순교당한 교회의 창설자이신 요셉 스미스의 후계자였다. 그는 1844년에 성도들의 지도자로 택함을 받았고 1847년 12월 27일에 교회 대관장으로 지지되었다.”



즉석 퀴즈 오 제이 로버트슨 작

섬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과 수도를 연결시키시오.

- | | |
|----------|-----------|
| 가. 인도네시아 | 1. 퀘슨시티 아 |
| 나. 필리핀 | 2. 토오쿄오 |
| 다. 바하마 | 3. 웰링턴 |
| 라. 일본 | 4. 자가르타 |
| 마. 뉴질랜드 | 5. 내소 |

경고의 휘파람

펜트 휘트니

말들을 쉬게 하고 점심을 먹으려 했던 커다란 붉은 바위에 접근하는 것이 차츰 두려워졌다. 탈주한 인디안 쿠엔호가 거기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이때는 1925년도로서 돈이 몹시 귀한 때였다. 나는 여러 번 네바다주 세인트 토마스에서부터 벙커빌 산까지 가는 이 길을 삼목 나무를 끌면서 마차로 여행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약간의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파이우트 인디안들은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인디안이었다. 그러나 쿠엔호는 탈주자였으며 그에게 명령하는 추장도 없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최근에 그의 습격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초조하고 긴장되었으며, 오월의 찬 바람 때문에 춥기도 하였다.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 레티는 오늘 아침에 어린 딸을 안고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여보, 인디안이 나타나는 기미가 보이면 말들을 몰고 곧장 집으로 오셔야 해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당신이 더 필요해요.”

나는 그러마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지금 산을 올라다 보면서 내가 이 여행을 하기로 한 것이 현명한 결정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품었다. 가족을 위한 새 집 마련의 꿈이 나의 발걸음을 채촉하였다. 세인트 톰슨에 살고 있는 20가구의 물론 가족은 모두 열심히 일하는 농부와 소몰이들이었다. 톰슨 마을과 주민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에 용솟음쳤으며, 나는 나의 가족과 앞으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줄 자녀들을 위하여 평화스럽고 안전한 곳을 이룩하는 것을 돕기로 결심하였다.

등반은 굼뚱고 말들은 거센 숨을 몰아 쉬었다. 말들은 정오의 휴식과 귀리 보따리를 몹시 반겼다. 나는 최근에 난 길을 훑어보면서 사람이나 말이 보이는가 하고 먼 곳까지 주의해 보았다. 커다란 붉은 바위의 안식처에 피워 놓은 작은 불은 나의 몸을 따뜻하게 녹여 주었지만 내 머리 속을 짝 메우고 있는 쿠엔호에 대한 두려움은 몰아내지 못하였다.

나는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침낭을 물통 위에 올려 놓고 다시 마구를 정리하였다. 연중 이맘 때에는 집에서 누빈 침낭과 부드러운 담요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모닥불 재료 열을 가하는 금속제 요리 냄비는 맛있고 따뜻한 음식을 제공했고, 식료품 상자에는 비스킷을 만들기 위한 밀가루와 이스트, 그 위에 붓는 남부 유타의 당밀, 말린 과일, 돼지고기 등이 담겨 있었다. 나는 모든 장비를 잘 갖추고 있었다.

불안한 마음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나는 좁은 길을 오르기 전에 다시 한번 사방을 둘러보았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말의 끈을 풀어서 떠날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마차 바퀴를 따라 흙먼지가 일고 있었다. 적의에 불타는 눈이 나를 지켜 보면서 산까지 뒤쫓는 것은 아닐까? 사파이어 색의

푸른 하늘과 솜같이 뭉게뭉게 피어 오른 구름은 평화로웠다. 그러나 예리한 바람은 그날 밤에 몹시 추울 것이라는 징조를 보여 주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였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길고도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대기를 뚫었다. 나는 말을 세웠다. 이러한 황량한 곳에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려고 휘파람을 부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고삐를 매어 놓고 마차에서 내려 다시 협곡까지 걸어갔다. 협곡의 바닥에 물통 위에 있는 나의 침낭이 눈에 띄었다.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바람에 깜박 잊고 침낭을 물통 위에 놓고 온 것이었다. 그날 밤 침낭이 없었으면 추운 산에서 지독한 고생을 할 뻔했다. 누군가가 이것을 알고 나를 불러 세운 것이다.

침낭을 찾아서 다시 높은 산 위로 올라 왔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차츰 나는 그 휘파람 소리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마차로 가면서 감사를 드렸다. 모든 불안, 초조,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느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온몸에 스며 들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지켜 보시는 것을 알았다. 그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알고 계시며……침낭이 떨어진 것도 알고 계신다.

그날 밤 숲속에서 부는 부드러운 바람은 내가 삼목 가지 위에 침낭을 떠면서 마음속으로 부르는 노래의 반주가 되어 주었다. 별들이 나에게 가까이 내려 와서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고 속삭여 주었다. 거룩한 성령의 화평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이 내 영혼을 채워 주었다. *

“오늘날 예언자가 있습니다”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로잘린드 존즈

내가 복음에 대하여 처음으로 듣게 된 것은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에 몇몇 근무자들이 종교에 대하여 토론하기 시작하였는데 각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교회를 믿고 있었지만은 물론 제각기 자기 교회가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모두 옳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한 어느 교회에 속하든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신교를 믿으면서 내가 이해하는 한 성경의 모든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예언자를 통하여 계시하지 않으시고 다만 경전을 통하여서만 계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영은 다른 사람에게도 들릴 만큼 큰소리로 나에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토론하는 중에 한 용기있는 간호원이 물론 교회는 예언자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참된 교회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언자가 있다구요?” 나는 속으로 비웃으면서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라고 그녀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책을 한 권 가져다 주었는데 그것이 물몬경이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계속 읽으면서 내 가슴은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뜨거운 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책이 진실인지 아닌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라는 모로나이의 권고를 읽고 나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실 나는 주님께서 그것을 알려 주실 만큼 나를 생각해 주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간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성경책과 금판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금판은 어찌나 빛이 나던지 마치 태양 같았습니다. 나는 꿈에서 이 두 책이 모두 진실하나 금판이

더욱 진실하고 더욱 순수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잠에서 깨었을 때 그것은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간호원은 나에게 교리와 성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책을 다 읽었을 때 나는 이 경륜의 시대에 그토록 많은 진리를 받은 교회 회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백인만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서 흑인인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면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나는 이 교회가 참되기 때문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매우 친절하고 따스하고 사랑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훌륭한 두 자매 선교사와 6번 선교사 복음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내 일생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침례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서도 그 교회에 가입할 수 없게 되자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하였습니다. 나는 약 8개월이 지난 후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결코 침례받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금식하고 기도하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헌금을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약 1년이 지난 후 금식일에 남편이 침례받는 것을 승낙하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과 내가 침례받은 날은 내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물몬경을 가져다 준 그 간호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녀는 내가 영생의 길에 들어서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충실하고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

매리안 마이어즈

6개월 동안 공부하기 위하여 성지에 왔을 때 나는 그 기간 동안에 매우 영적인 여성이 되겠다는 굳은 각오가 서 있었다. 나의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겠는가? 나는 그리스도께서 걸어다니시던 들을 보고 그가 비유로 자주 들던 자연을 볼 수 있는 그의 고향에 오게 된 것이다. 나는 그 땅을 알아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다. 나는 처음 도착했을 때보다도 더 구세주에 대하여 알고 싶었다.

여러 주일이 지나면서 나는 스스로 계획한 모든 목표를 향하여 일을 시작하였다. 나는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타는 듯한 영을 느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다는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어느 가난한 아랍 마을을 관찰하고 봉사하는 일에 응모하기로 결심하였다. 우리는 그들의 영양, 보건, 위생 등을 돕게 되어 있었다.

내가 방문한 첫번째 장소는 피난민 수용 캠프로서, 나는 그곳에서 4.5킬로그램이 조금 넘을 정도의 체중을 가진 한 살 된 어린 여아를 돌보게 되었다. 겁에 질려 움츠린 조그만 아이를 안았을 때 내 마음은 슬픔으로 가라앉았고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말해 보렴. 무슨 일이든 다할게!”라고 울부짖고 싶은 심정이었다. 내가 그 조

그만 발목을 만지고 인형과 같은 발가락을 펼 때 그 아이의 어머니는 나의 생각을 알아낸 것 같았다. 그녀는 아기를 받아서 꼭 껴안았다. 그 모녀를 보았을 때 아기의 눈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조차도 없는 것 같은 이 어둡고 추운 오두막집에도 가정의 사랑과 소망을 엿볼 수 있었다.

나는 그곳에 앉아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일생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라고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는 성지에서 공부함으로써 매우 영적인 여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가난한 아랍 마을에 있는 조그마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 : 34-35)

점차로 구세주께서 나의 생활에 들어 오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랍 마을의 바위가 많은 언덕을 걸어 올라가는 동안 우리는 근처의 샘에서 물을 떠서 머리에 이고 가는 아랍 여인들을 많이 보았다. 이것은 예수께서 사시던 때로부터 변경되지 않은 풍습의 하나이다. 우리가 걸어갈 때 이상한 미국인들을 구경하느라고 어린이들이 모여들었다.

우리는 아랍인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환대를 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극진히 대접하였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의 체중을 재어 주고, 서투른 아랍어로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려고 노력하였다.

마을 사람들의 눈길과 마주칠 때에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도 여전히 나는 약간의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완전히 그와 같은 느낌을 버리고 나의 사랑을 표시하고 싶었으나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그같은 감정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즈음에 우리를 안내하는 아랍인에게서 매우 흥미있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마을의 모든 여인들은 그녀를 만나면 멈추어 서서 따뜻한 인사를 보내고 때로는 그녀를 포옹하며 애정과 우정을 보이는 것이었다.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곳 사람들이 당신을 무척 사



랑하는군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매리안,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내가 자기가 한 말을 다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 것 같았다.

어느 날 우리는 길 끝의 언덕가에 있는 한 집을 방문하였다. 조그마한 돌집으로 걸어가니 가족이 모두 나와 우리를 맞이하였다. 아버지가 서투른 영어로 “안녕하십니까?”라고 더듬거리며 인사를 하였다. 말을 마치고는 약간 어색한 미소를 띄며 나를 쳐다 보았다. 나는 “좋습니다. 저를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듯이 그의 손을 잡아 주었다.

그의 아내는 방석을 가져 와서 앉으라고 권하였다. 우리가 모두 바닥에 앉자 어린 자녀들이 우리 주위에 둘러앉았다. 한 작은 소년이 오더니 몸을 뒤틀면서 내 곁에 앉았다. 그는 헉헉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껍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아랍인 영양사가 나에게 비정상아(정신박약아)라는 것을 손짓으로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는 그를 가만히 끌어안으면서 그를 사랑한다는 표시를 해주었다.

어린 소년을 안았을 때 내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집은 우리가 방문한 가정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가정이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가난 때문이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마침내 나에게서 벽이 무너진 것이다. 나는 가슴 벅찬 사랑 때문에 울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때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인가?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

...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허가하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저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저를 볼 것이매, 우리가 저와 같이 되게 하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져 하나님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되도록 할지어다.” (모로 7: 47-48)

나는 이스라엘의 아랍 마을에서 구세주처럼 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서 방석 위에서 뛰어오르며 소리를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 순간 나의 마음은 참으로 순수했으며, 언제나 그때와 같은 느낌을 갖기 위하여서는 무엇이든지 주려고 했다.

그러자 늙은 할머니가 내 곁으로 왔다. 나는 그녀가 나를 끌어안고 여러 번 내 볼에 입을 맞출 때 그녀가 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으나 방안 가득히 사랑이 차고 넘쳤다.

나는 언제까지나 그런 느낌이 내 안에 지속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작은 방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왜 내가 언덕으로 나가서 마음에 이러한 사랑을 간직할 수 없겠는가? 주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이러한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그렇다. 나도 사랑을 통하여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성급한 판단을 내리려 할 때마다 그 아랍 여인의 말을 기억한다. “매리안, 내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

장미꽃 위의 먼지

엘렌과 조이스 엠 켄슨



“이 게 뭐지?” 나는 침실에 들어가 설합장 위에 꽃병과 꽃이 있는 것을 보고 혼잣말을 하였다. 그것은 노란색 리본을 두른 초록색 유리 꽃병이었다. 꽃병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붉은색 비로드 장미꽃이 꽂혀 있었다.

15세 된 딸 엘렌이 전에도 친구를 위해서나 선물로 보내기 위해서 이러한 꽃을 만들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왜 엘렌이 나에게 이 꽃을 주었을까? 우리는 말다툼을 잘하지 않는 편이지만, 오늘 아침에 딸 아이와 말다툼을 하여 아직 먹구름이 걸리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걸 또 무엇일까…… 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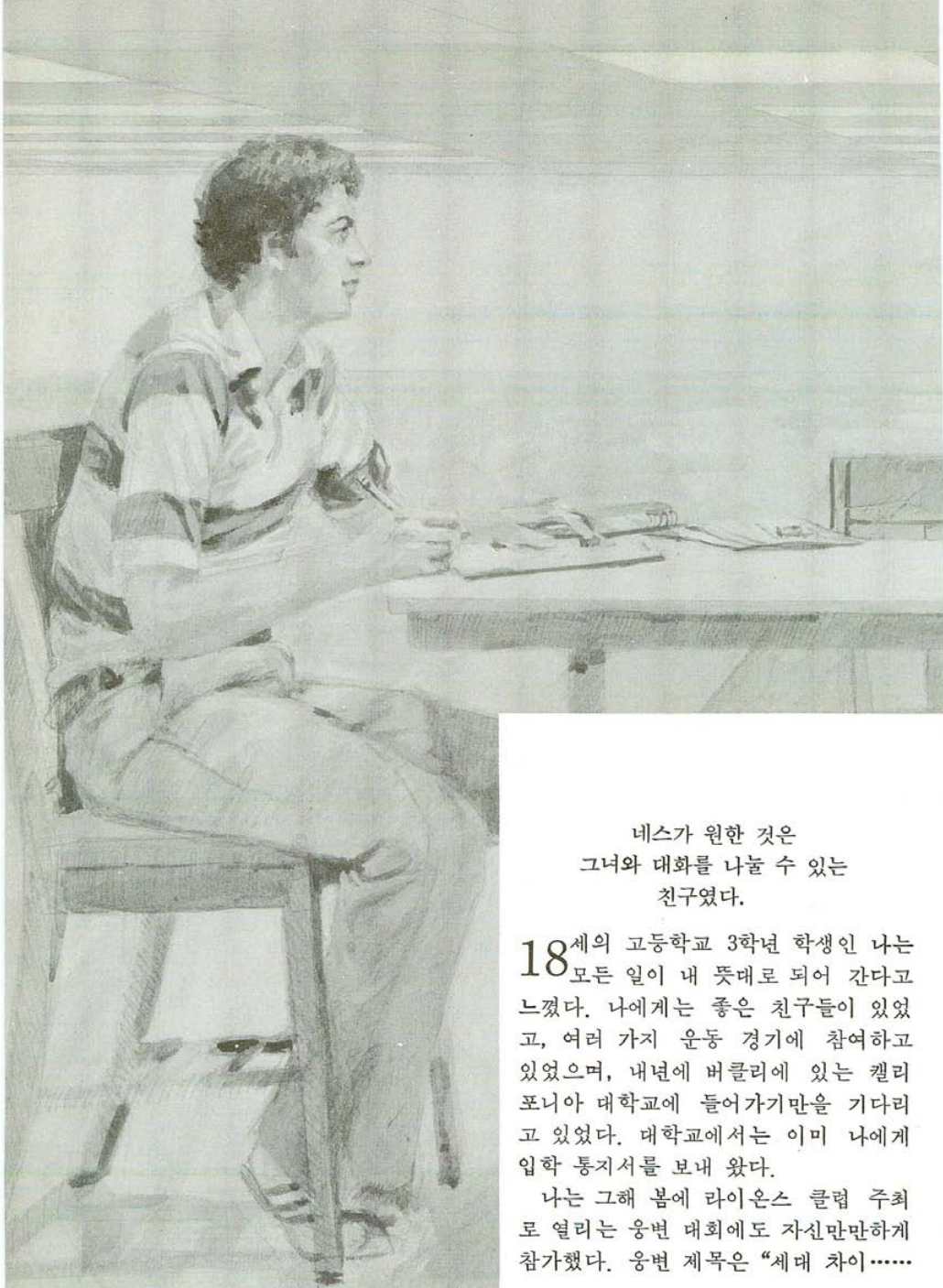
있었다. 나는 뜯어서 읽어 보았다.

“엄마, 이것은 작은 것이고, 진짜 생화도 아니지만, 생화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꽃이에요. 이 장미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일부러 조화를 드리려는 거예요. 생화는 죽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꽃은 언제까지나 살아 있을 거예요. 제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와 마찬가지로요. 때때로 제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장미꽃 위에 먼지가 덮이더라도 털어버리면 다시 새로운 꽃이 되듯이 우리가 화가 났을 때에도 그와 마찬가지로요. 먼지를 털어 버리면 우리의 사랑은 깨끗하고 새롭게 빛나게 될 거예요. 사랑해요, 엄마. 항상 사랑할 거예요.”

눈물이 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내가 먼저 사과하지 않은 것이 부끄러웠다. 엘렌이 먼저 사과한 것이었다. 딸은 우리 사이의 문제를 깨끗하게 한 것 이상의 일을 해주었다. 나에게 사랑의 선물을 준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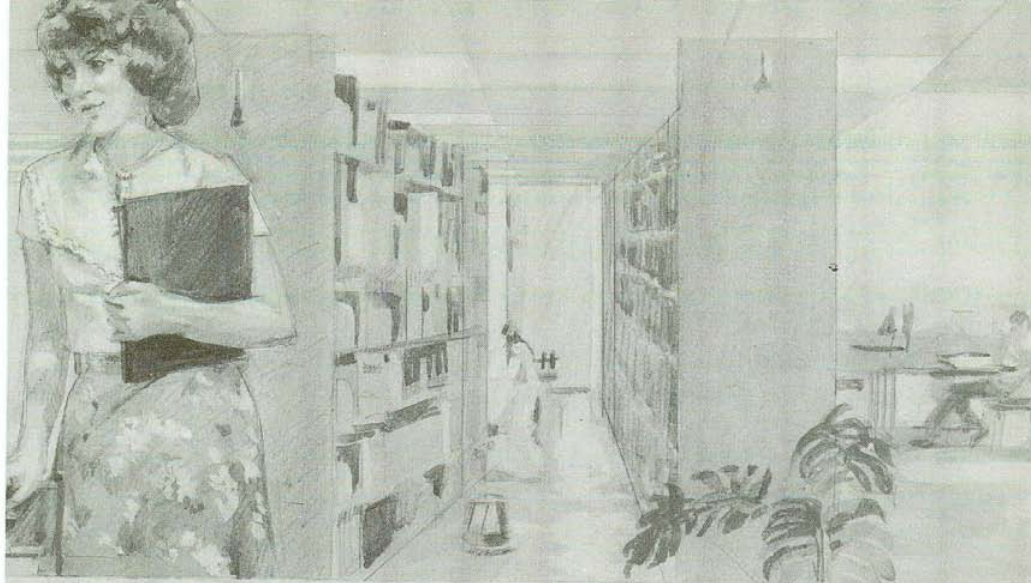
우리는 간혹 서로 의견 차이가 날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 사이에 끼인 먼지는 표면에만 쌓였었다는 것을 알았으며, 곧 털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우리는 따스한 감사의 정을 지니게 되었고, 나의 침실로 와서 비로드 장미꽃 위의 먼지도 털어 버렸다. *



네스가 원한 것은
그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였다.

18세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나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 간다고 느꼈다. 나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운동 경기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내년에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학교에서는 이미 나에게 입학 통지서를 보내 왔다.

나는 그해 봄에 라이온스 클럽 주최로 열리는 웅변 대회에도 자신만만하게 참가했다. 웅변 제목은 “세대 차이……”



비웃지 않을 사람

데이비드 캐프론

사실인가 환상인가”였다. 나는 심사 위원들의 기호에 맞게 웅변 내용을 썼다. 나는 물론인 캐렌이라는 여학생을 제치고 대회 우승을 차지하였다.

나는 심사 위원들의 마음에 드는 내용의 연설을 했기 때문에 우승을 차지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교회 교리에 입각하여 전개된 캐렌의 연설문이 보다 더 여러 가지 생각을 자아내게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녀의 연설은 나를 진실한 확신으로

감싸 주었다.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되자 우리의 대화는 때때로 논쟁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캐렌은 그녀의 종교를 옹호하고 나는 과학으로 논박하곤 하였다. 우리의 토론은 대부분 그녀를 좌절시키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나 캐렌에게는 베스라는 여자 친구가 있었다. 베스는 학교 복도에서 나에게 “안녕”이라는 말만 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그녀는 나와 캐렌의 대화를

나를 뒤로 잡아당기는 것은 영원한 진보의 원리였다. “그건 사실일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야?”

주의깊게 들곤 하였다.

네스는 나에게 한번도 자기가 말일성도라고 직접 말한 적이 없었다. 어느 날 네스는 도서실에서 내 책상가로 걸어왔다. “앉아도 돼?”라고 그녀가 물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녀는 자기가 이스라엘 지파의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같은 시간에 연구실을 함께 사용하게 되었으며, 3학년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 네스와 나는 나의 머리를 메우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문점을 가려내었다. 후에 그녀는 자기가 자신의 의견에 결코 비웃지 않을 사람과 함께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싶었다고 말하였다. 나는 사망 후의 생활과 같은

주제에 대한 나의 견해를 말했고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설명하였다. 그녀의 확신은 나를 놀라게 하였다. 나는 곧 그녀가 말일성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즈음에 우리의 이야기는 흥미있게 전개되어 나는 점심 시간을 네스와 그녀의 물론 친구들과 함께 보내기 시작하였다. 그들과 함께 하게 되면, 신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들은 담배도 안 피우고 쓸데없는 농담도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어떠한 사람도 비웃는 법이 없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 주었다. 그들과 함께 하게 되면 무언가 다른 느낌을 받았으며 나는 그것이 좋았다.

학년말이 다가왔을 때 캐렌은 나를 황록 무도회에 초대하였다. 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교회 무도회에는 참석해 본 적이 없었으며, 나는 양복을 입고 가야 했다. 나는 교회 건물 안에 체육관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체육관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보고는 더욱 더 놀랐다. 성인과 십대가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춤까지 추는 것이었다. 나의 친구들은 항상 부모를 좋아하는 것은 어린애들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전국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 단절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연령 차이를 불문하고 모두 친구같이 보였다.

나는 캐렌에게 이것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그녀는 교회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녀가 나에게 건물을 구경시켜 주었을 때 나는 그녀가 한 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이들이 매우 특별한 사람

들이며, 내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자랑으로 삼을 것이 많았다.

졸업 후 방학을 이용하여 일은 일자리 때문에 나는 새로 찾은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었다. 나는 주유소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무관심하였으므로, 우울하고 외롭게 지냈다.

7월 어느 날 오후에 네스는 친구 한 명과 함께 차를 몰고 주유소로 왔다.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사기가 충천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오를랜드 신전 패전트에서 노래를 부를 계획이었는데 내게 참석해 달라고 초청하였다.

나는 그 특별한 모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요셉 스미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내가 존경하게 된 말일성도의 역사를 알게 되었다. 패전트가 끝날 때 청중이 모두 일어나서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을 찬송하였다. 나는 나도 그 찬송의 가사를 알아서 함께 노래하고 싶었다. 나는 완전히 존경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회중이 친철히 떠났다. 나는 주차장에 서서 신전을 바라다 보았다. 나의 마음속에서 언젠가는 나도 저 신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음성이 들렸다.

가을이 되자 베스는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감 영 대학교로 떠났고 나는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로 돌아갔다. 다시 외로움이 나를 감쌌다. 네스는 일주일에 두 번 또는 세 번씩 편지를 보냈다. 나는 그녀에게 왜 물문이 되었느냐고 물었다. 다음 편지는 두툼했다. 비활동 가족과 함께 살면서 교회에서 활동을 계속하며 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그

마침내 나는 이해하였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입가의 미소는 점점 커져서 웃음으로 폭발되는 듯하였다. 나는 웃음을 그칠 수가 없었다. 나의 생각은 이 교리에서 저 교리로 넘나들었다. “그래 그래, 모든 것이 다 맞아들어!” 나는 춤추고 노래하고 뛰고 싶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교회에 가입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너의 고민을 자세하게 설명한 편지였다.

나는 교회에 가야 한다고 결심하였다. 그것은 어려운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내게 교회에 나가라고 일러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나 혼자서 결론을 내려야 했다.

나는 교회의 문을 열었을 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나는 혼자 예배당에 들어가 맨 뒷줄 빈 의자에 재빨리 앉았다. 여기서도 나는 외톨이가 되는 것인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캐렌이 나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 것이었다. “안녕, 데이비드.” 그녀는 활짝 웃으면서 인사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나에게 내가 들어가야 할 받을 일러 주었으며, 분반 시간 내 내 곁에 앉아 있었다.

나는 질문을 할 수 있고 답을 받을 수 있는 받을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인상깊었다. 더우기 교사인 브라스 자매는 반이 끝난 후에 나에게 교회에 나온 것을 고맙게 여긴다고 인사해 주었다. “형제님 때문에 오늘 공과가 훨씬 의미깊었어요.”라고 그녀는 말하였다. 나는 것처럼 마음이 편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교회의 다른 모든 회원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정도의 영적인 간증을 갖지 못하였다. 나는 교회를 좋아하였다. 교회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믿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참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는 계속 모임에 참석하였다.

한 달 후에 네스는 나에게 브리감 영 대학교로 오라고 청하였다. 나는 그같은 기회에 뭘 듯이 기뻐고 회오리바람에 휩쓸리기라도 한듯 프로보로 달려갔다. 그녀는 학교를 마치 그녀의 일부라도 되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교정을 걸으면서 우리는 종교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나의 머리 속에는 고등학교 도서관에 있었을 때와 같이 여러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이 어떻게 함께 어울리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나를 뒤로 잡아당기는 것은 영원한 진보의 원리였다. “그건 사실일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야?”라고 나는 말하였다.

우리는 요셉 스미스 빌딩 앞에서 있

었다. 네스는 잠시 말을 끊었다.

“테이브, 우리가 육신으로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창조되었어. 우리의 일부인 영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서 직접 온 것이야.”

마침내 나는 이해하였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입가의 미소는 점점 커져서 웃음으로 폭발되는 듯하였다. 나는 웃음을 그칠 수가 없었다. 나의 생각은 이 교리에서 저 교리로 넘나들었다. “그래 그래. 모든 것이 다 맞아들어!” 나는 춤추고 노래하고 뛰고 싶었다.

그곳 요셉 스미스 빌딩의 층계에서 영은 나에게 복음 계획을 간증해 주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교회에 가입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아직도 물문경을 읽어야 했고,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했으며, 선교사 복음 토론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나의 일생은 그 순간부터 변화되었다. 나는 진리와 목적과 성취해야 할 인생을 발견하였다. 다섯 주가 지난 후에 나는 침례를 받았다.

18개월 후에, 언젠가 오클랜드 신전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랐던 꿈이 실현되는 날이 왔다. 나는 선교사로 떠나기에 앞서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귀환한 후 네스와 나는 우리가 도서실 책상에서의 대화로부터 시작된 여행을 영원한 여행으로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프로보 신전에서 결혼하였다.

나는 아내를 볼 때마다 고등학교 시절에 “자기의 믿는 바를 비웃지 않을 사람과 나누고 싶어하는” 신앙을 가진 소녀를 마련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그녀는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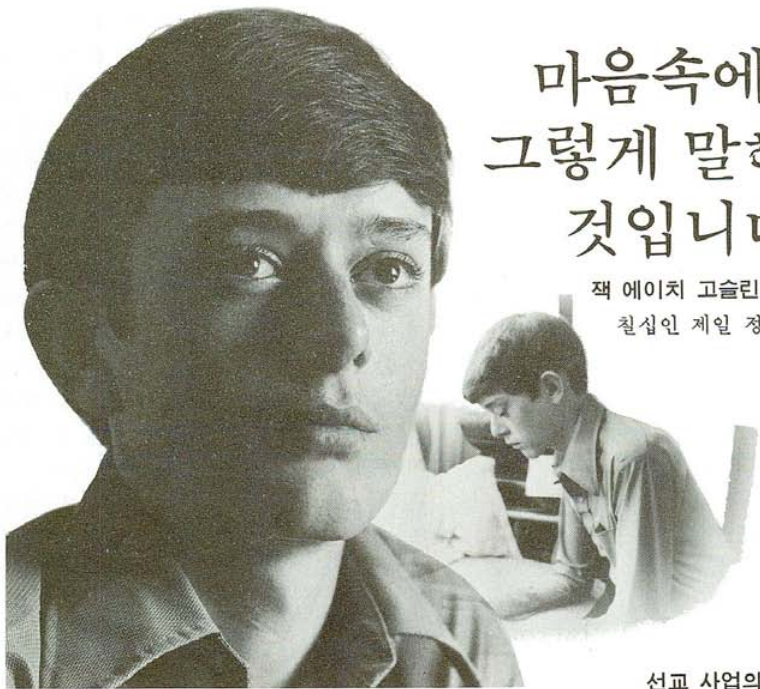
이 생애를 뒤돌아보고 어려운 결정들을 생각해 볼 때,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웠던 것은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감독도 나에게 선교사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친구들 중에도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였지만,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지.” “학교는 어떻게 할거야?” “여자 친구는 어떻게 하고?” 2년이라는 세월 동안 포기해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이 이와 같은 결정에 직면하게 될 때,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고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라.”(교성 8:2) 여러분을 쉽게 주님의 곁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유인하는 외부의 영향력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킴벌 대관장님은 “모든 청년은 선교사로 나가야 합니다.”(“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성도의 빛, 1974년 11월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청소년은 선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지니면서 성장해야 한다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미 결정은 19세가 되기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

마음속에서 그렇게 말해 줄 것입니다

잭 에이치 고슬린드 이세
칠십일 제일 정원회



선교 사업의 축복과 책임

며,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킴블 대관장은 예언자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는 여러분과 나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시는 바를 말씀하십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바를 말해 줄 것입니다.

왜 선교 사업을 행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몇 가지 답이 나의 머리에 떠오릅니다. 확실히 그 답은 쉽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는 이것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교회 지도자 및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선교사로 나가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은 아닙니다. 내가 결국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했을 때 내 발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느껴던 기쁨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 일생에서 단 한번 나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쳐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보람있는 일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 10 : 38—39)

우리는 구세주께서 짊어진 십자가를 지라는 명을 받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랑을 지고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온 인류를 위한 위대한 구속의 계획은 실패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회개한다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으며, 만민에게 미치는 부활을 통하여 불사불멸을 얻게 되고, 결국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해의 왕국에서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을 수 있으니……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룩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19세에 경험하였던 나의 선교 경험은 나에게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뿐 아니라,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성취할 수 없었던 인생의 균형을 취하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나 자신과 주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신권의 권능을 경험하고 동반자와 내가 구도자들과 나누었던 것들을 간증할 때 성신의 영향력을 봄으로써 더욱 강한 간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예언자 물몬이 말씀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모로 7 : 47)의 의미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나의 온 영혼을 깨우는 것 같았으며, 그 때문에 나는 내가 강하게 느낀 느낌을 쉽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부모에 대하여 참된 공경심과 사랑을 느끼게 되었으며, 부모님을 믿

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전에도 물론 부모님을 믿고 사랑하고 공경했지만, 선교 사업을 할 때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생애에서 이처럼 복음의 의미와 영향력을 인식하게 된 때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나의 선교부장, 동반자, 우리가 가르치고 침례를 준 가족들—과 친분을 맺게 되었습니다. 나는 선교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전보다 더 우수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성신의 영향을 받은 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입어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기도할 때나 공부할 때나 일할 때에도 주님의 훌륭하고 부드러운 영을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선교 사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얻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김볼 대관장님의 “모든 청년은 선교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 기울여 보시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오는 행복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

“회개한 자를 보시는 주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도록 부름을 받았느니라.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 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만일 너희가……내게로 데려온 단 한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것처럼 클진대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게 될 때면 너희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교성 18:10, 13-16)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하는 것이 심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참으로 올바른 결정임을 간증드립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것은 약속과 큰 축복이 수반되는 계명입니다. 사실 선교 사업을 통하여 오는 놀라운 축복의 빛에 비추어 볼 때 회생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정해진 결정은 미래의 결정, 곧 결혼, 학교 진학, 직업 등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보다 쉽게 내리게 해주며, 실수하는 경우는 극히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다음 성구의 의미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를 세울 기초가 되실 이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반석이신 구세주임을 기억하고 다시 기억할 지어다.

그리할진대 악마가 그의 세찬 바람을 불어 보내며 회오리바람을 불어 치게 하고, 그의 우박과 강한 폭풍으로 너희를 휘몰아칠지라도 너희를 넘어뜨려 비참하고 끝없는 저주의 구렁으로 쓸어 넣지 못할지니, 이는 너희가 분명한 토대 위에 세워졌음이라. 이 토대 위에 세움을 입은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 하리라.”(월 5:12) *

